



전차군단 공격에 아르헨 수비 와르르...

독일의 백전노장 스트라이커 미로슬라프 클로제(오른쪽)가 4일(한국시간)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경기장에서 치러진 아르헨티나와 8강전에서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를 제치고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KIA 치욕의 14연패

휴일 양현종 필승카드도 무위 삼성에 3-5 패

‘디펜딩 챔피언’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KIA 타이거즈가 14연패의 늪에 빠졌다.

주말 대구를 찾아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결을 벌인 KIA 타이거즈가 투·타의 부진 속에 3-5로 지면서 연패탈출에 실패했다. 지난 달 18일 SK와의 원정경기부터 시작된 KIA의 연패행진은 14연패까지 이르게 됐다.

삼미(18연패·1985년)-쌍방울(17연패·1999년)-롯데(16연패·2002년)-롯데(2003년)·태평양(이상 15연패·1993년)에 이어 역대 여섯 번째로 긴 연패를 당한 KIA는 다음 주중에는 2위 두산과 맞붙을 예정이어서 연패 탈출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연패 끊기’라는 막대한 임무를 띠고 출격한 선발 양현종이 1이닝 동안 5실점을 하면서 자멸했다.

첫 타자 조동찬을 볼넷으로 내보낸 양현종이 오정복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으며 경기 시작과 함께 점수를 내줬다. 무사 2루에서 박한이에게 두 번째 볼넷을 허용한 양현종은 폭투까지 하는 등 1회에만 3실점을 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2회초 KIA가 무사 2루에서 이영수의 좌전 안타와 좌익수 오정복의 실책을 묶어 1점을 만회했지만 2회 말 양현종이 다시 첫 타자 이영욱을 내야안타로 출루시켰다. 조동찬에게 몸에 맞은 볼을 허용한 양현종은 결국 2회도 버티지 못하고 강판당했다. 양현종에 이어 안영명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1사 2·3루에서 박한이의 중전안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1-5까지 벌어졌다.

초반 실점 이후 KIA는 이번 주전 경기에 출장한 ‘마당쇠’ 김희철과 선발자원 과점절까지 투입하며 마운드 수성에 나섰지만 짐목의 타선이 연패를 자초했다.

상대실책으로 선취점을 기록한 이후 KIA 득점타가 터지지 않았다. 5회초 1사에서 이영규와 김선빈이 연속안타로 나간 뒤 이종범이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이영규가 3



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삼성의 경기에서 3회말 좌전안타로 출루한 삼성 신명철이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루를 훔치며 삼성 마운드를 흔들었지만 나지완의 외야플라이로 이닝이 종료됐다. 6회초 홍세완의 2루타로 만든 1사 2루의 찬스에서도 후속타가 불발됐다.

뒤늦게 이현곤의 한 방이 터졌다. 대수비로 들어간 이현곤이 8회초 첫 타석에서 권혁

을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쏘아올렸다.

KIA는 9회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만든 무사 2루에서 1점을 더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3-5 또다시 패배로 마무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곡성중 볼링 전국 제패

장관기볼링 남녀 개인전·2인조 1위 휩쓸어

곡성중학교(교장 양학철) 볼링팀은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볼링대회에서 1위 3개, 2위 2개, 3위 1개를 차지하며, 지난 4월 제25회 대통령기대회에 이어 또 한 번 전국을 제패했다.

곡성중은 최근 울산에서 열린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볼링대회에서 개인중

합 1위(오명섭), 여자 개인종합 1위(이영승), 2인조 1위(이영승·김예슬), 개인전 2위(이영승), 4인조 2위(이영승·황세림·강유림·김예슬) 등을 휩쓸었다.

특히 이영승은 대회 2관왕에 오르면서 국내 여중부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서리나 윈블던테니스 2연패

‘흑진주’ 서리나 윌리엄스(1위·미국)가 윈블던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윌리엄스는 3일(한국시간) 영국 윈블던의 올림플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베라 조보나레바(21위·러시아)를 2-0으로 꺾고 우승했다. 2002년과 2003년, 2009년에 이어 네 번째로 윈블던에서 정상에 올라선 윌리엄스는 우승 상금 100만 파운드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유럽의 뒷심... 남미 몰락

우루과이 VS 네덜란드, 독일 VS 스페인 격돌

유럽 3개팀 4강 진출... 브라질·아르헨티나 탈락



4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스페인-파라과이의 8강 마지막 경기(스페인 1-0 승)로 남아공 월드컵 4강 팀이 모두 가려졌다. 우루과이-네덜란드, 독일-스페인도 월드컵 축구 4대 천왕으로 등극했다.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 탈락=스페인인 이날 요하네스버그 엘리스파크 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의 접전 끝에 다비드 비야의 결승골과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의 눈부신 선방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비야는 후반 38분 페드로가 날린 슈트 왼쪽 골대를 맞고 나오는 순간 재차 슈트로 연결시키며 결승골을 뽑아냈다.

독일도 이날 케이프타운의 그린포인트 경기장에서 2골을 넣은 미로슬라프 클로제를 비롯해 토마스 뮐러(이상 바이에른 뮌헨), 아르네 프리드리히(헤르타 베를린)가 번갈아 골을 터뜨려 아르헨티나를

4-0으로 완파했다. 우루과이는 전날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와 만나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1-1로 비기고 나서 승부차기 끝에 4-2로 이겨 1970년 멕시코 대회 이후 40년 만에 4강 진출을 이뤘다. 우루과이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연장 후반 추가시간 상대방의 헤딩슛을 손으로 쳐내 퇴장당했으나, 가나의 기안시 페널티 킥을 실패하는 바람에 위기를 넘겼다.

‘오렌지군단’ 네덜란드는 같은 날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과 만나 호비뉴에게 선제골을 내주고도 베슬라이 스네이더르의 동점·역전골에 힘입어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뒀다.

◇유럽 3팀, 남미 1팀=이로써 이번 월드컵 4강 진출팀은 유럽 3팀, 남미 1팀으로 유럽의 우승 가능성이 커졌다. 네덜란드-우루과이전은 7일 오전 3시

30분, 독일-스페인전은 하루 뒤인 8일 오전 3시 30분이다.

60년 만에 준결승 진출에 성공한 스페인은 FIFA 랭킹 2위로 6위의 독일보다 네 계단이 높다. 특히 5골로 이번 대회 득점 부문 1위를 달리는 골잡이 다비드 비야는 물론 천재 미드필더 사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등 화려한 멤버를 자랑한다.

독일 역시 이번 대회 나란히 네 골을 기록 중인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토마스 뮐러(이상 바이에른 뮌헨)를 앞세운 막강 공격력을 뽐내고 있다.

유일한 남미팀인 우루과이(16위)는 간판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아약스)의 8강전 핸들링 파울에 따른 결장으로 디에고 포를란(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한 방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반면 네덜란드(4위)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베슬라이 스네이더르(인터밀란)가 네 골을 사냥하며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고 로빈 판페르시(아스날), 디르크 카위트(리버풀), 아르넌 로번(바이에른 뮌헨) 등 공격 3각 편대가 위협적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차두리, 기성용과 한솔밥 셀틱과 2년 계약

차두리(30)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셀틱FC와 2년 계약을 맺으면서 대표팀 후배 기성용(21)과 한솔밥을 먹게 됐다.

셀틱 구단은 지난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차두리와 2년 계약을 맺었

다. 워크퍼밋(노동허가서)이 발급되면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며 “차두리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3경기에 출전했다. 계약조건은 2년에 옵션으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독일 2부리그 TuS 코블렌츠를 떠나 프라이부르크로 동지를 옮겼던 차두리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구단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동지를 찾아왔다.

차두리는 프라이부르크와 계약이 종료돼 자유계약 신분으로 셀틱에 입단하게 돼 올해초 먼저 입단한 기성용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게 됐다. /연합뉴스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닝네기발

가발 타사제형: 1회 관리서비스 제형찬스
6월 1일 - 7월 30일까지(예약제)

초슬림!! **각각 50만원~**

귀여운 뽀뽀를 인력을 높여주는 행운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52-873-5858, 872-4832
평창 이후 제011-603-9555

출정주김재규경림약원

출정주 김재규 경림약원

출정주 김재규 경림약원

연대공인중개사
T. 902-371-1000, 010-2000-0150

연대공인중개사

연대공인중개사